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0년 11월 29일

납치문제 대책본부 제4회 회합 본부장 지시

북조선(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12건으로 17명이지만, 8년 전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의 납치 피해자가 아직도 북조선(북한)에 억류된 상태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여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 이외에도,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납치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교착 상태에 있는 어려운 현실 인식 아래, 하루마뻬 모든 납치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나가 되어 더한층 맹진하며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북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 65회 유엔총회(2010년 9월 24일)에서 표명한 바와 같다. 일조(日朝)평양선언에 의거하여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그 전제로서 납치 문제 해결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북조선(북한)이 일조(日朝) 간의 합의에 응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대응을 해 온다면 일본으로서도 동등한 대응을 할 용의가 있다. 일본측은 지속적으로, 북조선(북한)이 누차에 걸친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공동 성명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앞으로도 요구해 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해 왔다. 그러나 현재, 북조선(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견지하며, 한국 연평도에 대해 포격을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 보였다. 이러한 도발 행위는 일본을 포함한 북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다. 당 대책본부로서도 이러한 사태를 감안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위한 시책’ 및 ‘생사 불명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 규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제 2차 납치문제 대책본부 회합의 확인 사항(별첨)을 토대로 하여, 당분간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각 부처의 예지를 결집해서 이하 8개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기로 한다

- ① 납치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하여 세심한 대응을 한다.
- ② 북조선(북한) 측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한 검토 및 현행법 제도 하에서의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 ③ 2008년 8월의 일조(日朝)합의의 이행을 포함하여, 북조선(북한) 측의 구체적인 행동 실시를 계속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 ④ 납치 피해자 및 북한 정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리를 강화한다.
- ⑤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관련된 수사과 조사를 철저히 하며, 납치 실행법과 관련한 국제 수사를 포함한 수사 등을 계속한다.
- ⑥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내외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한다.
- ⑦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계 각국 등과의 국제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 ⑧ 그 외,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추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기동력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본부장, 부분부장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연계를 지속하기로 한다.

납치 문제 대책

2010년 6월 18일

납치문제 대책본부 제 2 차 회합 내용을 확인

1. 북조선(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일본의 국가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바삐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노력한다.
 - 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위한 시책
 -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 규명
2.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 각국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유지한다.
3. 납치 문제의 해결없이 북조선(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한다.